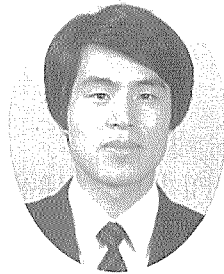


# 정유업계 구조조정의 영향과 과제

- 현대정유의 한화에너지 인수와 관련하여 -



문 선 목

< 산업자원부 석유정책과 사무관 >

## 1. 정유업계의 구조조정 추진배경

### (1) 정유업계 구조조정의 필요성

지난 9월 3일 5대그룹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반도체, 석유화학 등 7대업종에 포함되어 정유업종의 구조조정방안으로 현대정유가 한화에너지의 정유부문을 인수한다는 내용이 전경련에서 발표되면서 본격 추진되고 있는 정유업계의 M&A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동안 국내 정유산업은 국내수요를 웃도는 정제시설의 공급초과 현상과 IMF체제 이후 일부 정유사의 경영난으로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계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한화에너지는 작년말 외환·금융위기 이후 환율상승과 원유도입을 위한 유전선 사용 중단으로 막대한 자금난을 겪으면서 금년중 정유업의 100% 대외개방에 따른 외국기업과의 합작·매각 또는 국내기업간의 인수·합병 등 다각적인 구조조정 방안을 추진하여 왔다.

작년 12월부터 매각을 추진해 온 한화에너지는 발전부문에 대해서는 미국의 다국적 전력기업인 AES사와 지난 5월 28일 매각기본계약을 체결하여 매각절차를 진행중에 있으며, 정유부문에 대해서는 해외 메이저사, 산유국 국영석유사 및 국제투자전문회사 등과 지속적으로 매각협상을 벌여오다가 국내 대기업간의 박딜과 관련하여 국내 정유사들도 대상에 포함해 매각협상을 진행하여 마침내 8월 31일 현대정유와 의향서를 체결하고 한화에너지를 현대에 매각기로 결정한 것이다.

### (2) 현대정유의 한화에너지 인수 내용

현대와 한화는 지난 9월 1일 의향서를 교환하면서 한화가 소유하고 있는 한화에너지(주)와 한화에너지프라자(주)의 주식 및 경영권 일체를 양도한다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하였다. 양사는 최단시일내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협의를 거쳐 최종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10월말까

지 주식양도에 따른 인수대상사에 대한 모든 실사 및 정산, 채권자 등의 기타 관련절차 등을 완료기로 하였다.

또한, 양사는 고용문제와 관련하여 한화에너지 및 한화에너지프라자의 경영권 인수후 원칙적으로 기존 임직원의 고용을 승계하기로 하되, 다만 양사의 통합 운영에 따른 중복인력의 구조조정이 불가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의한 인원정리를 최소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이는 경영권 인수전에도 원유의 도입, 시설의 공동이용, 물류 등 공동운영에 따른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현대의 한화에너지 인수로 국내 석유업계는 커다란 변화가 예상되는데 이하에서는 현대의 한화에너지 인수에 따른 국내 석유산업에의 영향과 향후 대응과제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 2. 현대정유의 한화에너지 인수에 따른 영향

### (1) 정유산업의 구조 효율화

이번 현대정유의 한화에너지 인수로 석유업계간의 M&A를 통해 공급초과 상태에 있는 국내 정유산업구조가 보다 효율적인 체제로 개편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정유업계는 그간 정부의 보호와 규제속에서 외국기업의 참여를 제한한 채 공급능력 확충을 통해 급증하는 국내 석유수요를 충족하여 왔다. 이에 따라 현재 국내의 정제시설능력은 2,438천B/D로서 '97년 국내수요(2,175천B/D)의 112.1%, 98년 국내수요전망치(1,911천B/D)의 127.6%로서 초과공급능력이 존재하는 상황이고, 이러한 국내수요대비 초과생산능력은 외환·금융위기 이후 국내경기의 침체로 인하여 2000년대초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석유유통부문에서도 주유소의 거리제한 폐지와 함께

각 정유사가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지원을 통하여 주유소를 양산함으로써 93년말에 6,212개소였던 주유소수는 97년말에는 9,928개로 급증하였다.

이번 구조조정으로 기존 5사체제가 4사체제로 개편되어 중복부문의 비효율성이 제거되고 경쟁의 효율성이 제고되며, 후순위에 있는 2개사가 합병됨으로써 업체당 생산능력을 배가시켜 규모의 경제실현을 용이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Shell, Exxon, Mobil, BP 등 세계 4대 메이저의 평균 생산능력이 3,183천B/D인 점을 감안하면 현대정유(310천B/D)와 한화에너지(275천B/D)의 합병으로 생산의 효율성이 보다 높아져 대외개방 이후 예상되는 석유메이저와의 치열한 경쟁관계에서 생존할 수 있는 경쟁능력을 배양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석유수요 침체로 과잉설비가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양사의 합병으로 중복부문이 통폐합될 경우 중복투자문제를 해소하고 상당한 비용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환경규제 및 연료규격 강화를 충족키 위한 중질유분해·탈황시설 등 고도화시설에 대한 중복투자 문제를 해소하여 약 1조원에 이르는 투자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원재료 도입비용의 절감, 물류비 절감, 저유소 중복투자의 해소, 기타 인건비 및 일반경비 절감 등으로 연간 492억원의 비용절감효과도 예상된다.

### (2) 석유유통부문에서의 경쟁체제 변화 및 구조조정 촉진

한화에너지의 인수로 현대정유는 정제능력 및 시장점유율에서 SK, LG정유에 이어 업계 3위로 부상하게 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말미에 뒤쳐져 있던 현대정유가 시장확보를 위한 공세적 전략을 펼 경우 정유 4사간의 시장확보를 위한 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수

합병후 정유업계 현황(97)

	SK	LG	현대+한화	쌍용	계
매출액(억원)	107,565	72,024	61,468	53,207	294,264
정제능력(천B/D)	810	600	585	443	2,438
시장점유율(%)	36.5	28.3	21.2	14.0	100
주유소수(개)	3,655	2,715	2,202	1,348	9,928

도권지역의 시장확보에 취약했던 현대정유가 수도권지역에 견고한 판매망을 보유하고 있는 한화에너지를 인수함으로써 수도권지역 영입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기지역 주유소의 7.9%를 차지하고 있는 현대정유는 한화에너지를 인수로 수도권 주유소 비중이 23.1%로 확대된다.

정유사별 상표사용계약 주유소 현황(97)

(개, %)

	서울	경기	서울+경기	전국
현대정유	39(4.9)	160(9.2)	199(7.9)	1,064(10.7)
한화에너지	115(14.4)	270(15.6)	385(15.2)	1,138(11.5)
현대+한화	154(19.3)	430(24.8)	584(23.1)	2,202(22.2)
5개정유사	796(100)	1,735(100)	2,531(100)	9,928(100)

4사간의 경쟁은 저가격유지를 위하여 각사의 비용절감 및 경영합리화 노력을 배가시킬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과열경쟁으로 치달을 경우에는 석유업계의 수익성과 재투자기반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현대와 한화에너지를 인수·합병으로 양사와 연계된 석유대리점, 주유소 등의 통합 및 구조조정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 석유유통부문에 구조효율화의 바람이 몰아닥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동안 급속히 불어난 주유소는 석유수요 침체와 정유업계의 M&A속에서 많은 수가 통합되거나 퇴출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93년에 161개소에 불과하던 휴폐업 주유소는 작년에는 594개소로 늘어난 바 있다.

(3) 정유업계의 재무구조 개선 및 기업 건설화 계기 도모

그동안 우리 정유업계는 과다한 부채 사용으로 재무구조의 취약성을 드러내어 외환·금융위기 등 외적인 변화에의 대응능력이 크게 저하되어 왔다. 작년말 외환·금융위기가 발생하자 일부 정유사는 유전스차입이 중단되어 심각한 자금난을 겪었고, 원유도입에도 일부 차질을 빚은 적이 있다.

정유사 경영실적(97)

	매출액(억원)	세후순이익(억원)	부채비율(%)
S K (주)	107,565	202	497
L G 정 유	72,024	178	535
한화에너지	30,488	△582	3,270
쌍 용 정 유	53,207	944	379
현 대 정 유	30,980	112.5	992
계	294,264	854.5	569

현재 국내 정유업계는 연초부터 대기업 구조조정 차원에서 사업 및 조직·인력의 축소조정, 경영효율화와 재무구조 건설화 등을 적극 추진중에 있다. 이번 현대의 한화에너지 인수로 재무구조가 부실하고 경영난에 처한 한화에너지 문제를 해결하여 정유업계 전체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대외신인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화의 경우 이번 한화에너지의 매각은 자산규모 31%, 매출액 규모 43%로서 가장 큰 계열사를 매각한 것으로써 재무구조의 건전성과 자금유동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매각을 통해 한화는 1.200%에 달하는 부채비율을 400%대로 낮추고 자산재평가가 끝나면 200% 이내로 축소할 수 있게 된다.

현대정유도 한화에너지의 인수를 계기로 한화에너지의 과다부채정리 등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산유국 국영석유사로부터 외자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현대정유는 이란 NIOC, 사우디 ARAMCO, 쿠웨이트 QGPC 등 중동 산유국 국영 석유 사로부터 3~4억불 수준의 외자유치를 위해 협상중이며 외자유치 형태는 한화에너지 지분의 일정분을 양도하는 방안, 산유국의 원유를 장기간 외상구매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국내기업간의 M&A로 국내 정유업계의 대외신인도가 향상되는 경우 보다 용이하게 외자를 유치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쌍용정유가 그룹 경영난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분매각을 통한 외자유치협상도 조기에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3. 현대의 한화에너지 인수에 따른 과제

#### (1) 부채문제 신속해결을 위한 재무구조 개선계획 수립

현대정유와 한화에너지의 합병으로 정유업계는 구조조정의 효과를 보겠으나 부채비율이 3,270%에 달하는 한화에너지와 992%에 달하는 현대정유를 통합하는 경우 획기적인 재무구조 개선계획이 마련되지 않는 한 단기간 내에 경영정상화를 이루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정유로서는 채권금융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단기대출금의 장기전환, 대출금의 출자전환 등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지만, 동시에 현재 대출금 상환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산유국 국영석유사로부터의 외자유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마침 석유사업법 개정으로 10.1부터 정유업의 100% 대외개방이 실시되므로 외자유치의 제도적 여건은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양사의 어느정도 손실분담과 강력한 자구노력이 병행되는 경우 금융권과 정부의 지원조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한가지 검토되어야 할 과제는 비상장사인 현대정유

가 상장사인 한화에너지를 인수함에 따른 문제이다. 양사간의 합의내용을 보면 한화가 소유하고 있는 한화에너지 및 한화에너지프라자의 주식일체 및 경영권을 현대측에 양도하기로 하였으므로 우선은 현대가 한화종합화학이 보유하고 있는 한화에너지 지분(28.82%) 등을 인수하는데 별 문제가 없으나, 향후 양사간 합병단계로 진전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현대정유가 상장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기업공개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이 합병하고자 할 경우에는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따라서 상장사로서의 바람직한 합병을 위해서는 현대의 증자 또는 외자유치 등 재무구조 개선노력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 (2) 중복부문 통합 및 국내외 수요에 부합하는 정제시설 적정 운영방안 수립으로 효율성 제고

현대와 한화에너지의 합병으로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양사의 단순한 물리적인 합병이 아니라, 실제 중복되는 부문의 사업·조직·인력 등의 통폐합이 이루어지고 유통망 및 물류시설의 정비와 효율적 이용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로 인해 경비절감, 과다시설의 정비, 중복투자 방지 등 통합의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사가 합병된다 하더라도 당분간 정제시설능력의 국내수요 초과현상은 지속될 것이다. 합병회사의 정제능력은 585천B/D로서 양사의 97년 국내시장점유량 461천B/D의 126.9%에 해당한다. 잉여 생산능력은 당분간 가동율을 축소조정하거나 해외수출을 통하여 해소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합병회사는 국내수급 및 동남아 등 해외 시장 여건을 감안하여 적정 가동율 유지방안을 수립하는 동시에 적극적인 수출증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양사는 원칙적으로 한화에너지의 임직원의 고용을 승계하며 중복인력의 조정을 최소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

나. 어느정도 중복부문의 고용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합병으로 인한 경영합리화의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면서도 해고 등은 최소한에 그칠 수 있도록 원활한 고용조정을 기대해 본다.

### (3) 석유유통 부문에서의 공정경쟁 등 거래질서의 확립

현대의 한화에너지 인수로 석유유통시장의 구조조정이 촉진되어 적정수익율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점도 있지만, 정유 4사체제가 되었다고 하여 석유유통시장에서의 과당경쟁여건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과당경쟁을 방지할 수 있는 근원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현대의 한화에너지 인수로 오히려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선두3사 및 산유국합작사인 쌍용정유와의 경쟁이 더욱 격화되어 가격인하 및 불공정거래행위가 증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덤핑·가격담합 등 불공정행위로 인한 시장교란으로 수익성 저하 및 소비자 이익이 저해되지 않도록 유통질서확립을 위해 업계의 자율적인 노력은 물론 정부의 강력한 거래질서 유지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 4. 맺는말

### (1) 업계의 자율적인 구조조정노력 지원

이제까지 현대정유와 한화에너지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예상영향과 과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현대정유가 한화에너지(정유부문)를 인수키로 함에 따라 구조조정이 시급히 필요한 정유업계의 효율성 향상을 통하여 경쟁력

제고 및 국내수급 안정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 8월 31일 발표된 세계 석유업계 최대규모의 BP와 AMOCO간 합병으로 새로운 합병회사는 RD/Shell, EXXON에 이어 일약 세계 3위의 기업으로 부상하였다. 합병된 회사는 중복부문의 비용절감과 상호 보완적인 부문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상당한 시너지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다른 석유 메이저들에게도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이는데, 현대와 한화에너지의 합병은 우리 석유업계에도 상당한 구조변화를 가져올 것임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향후 현대정유와 한화에너지는 자산 및 부채실사후 본 계약 체결, 주주총회에서의 사업양수도 승인, 석유사업 법상의 석유정제업 합병으로 인한 지위승계 신고 등 10월말까지 인수절차를 완료할 계획인 바, 정부에서도 실질적인 구조조정의 효과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계의 자율적인 구조조정 노력을 적극 독려·지원할 계획이다.

### (2) 중장기 석유수요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산업 구조 실현

한편, 중장기적으로 구조조정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정유산업 구조변화(5사체제→4사체제) 및 외국기업 진출에 따르는 정유산업 및 유통산업의 효율성 제고방안, 시장경쟁체제의 변화에 따르는 과열가격경쟁 방지 및 유통거래질서 확립방안 등 구조조정 이후 정유산업 및 유통산업 구조변화에 대응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또한, 향후 업계간 M&A를 활성화하여 시장기능에 의해 업계 자율적으로 중복·과잉투자를 방지함으로써 2000년대 중장기 석유수요에 부합하는 적정투자 규모 및 산업구조를 실현하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다. ♣